

GANGJIN 

Web Contents



용아(兒) 박용철(朴)

용아(兒) 박용철(朴 , 1904. 6. 21 ~ 1938. 5. 12)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동에서 태어났다. 그는 1916년 광주보통학교를 졸업하고 이듬해 휘문의숙에 입학했다가 바로 배재학당으로 전학, 1920년 졸업을 몇 달 앞두고 자퇴했다. 그 뒤 일본 아오야마 학원(山學院) 중학부를 거쳐 1923년 도쿄 외국어학교 독문과에 입학했으나 관동대지진이 일어나자 귀국했다. 귀국 후 연희전문에 입학했으나 몇 달 뒤 자퇴하고 문학에만 전념했다. 1938년 5월 후두결핵으로 타계(34세)했다. 그가 문학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아오야마 학원 시절 영랑과 사귀면서부터이다.

1930년 김영랑·정지용과 함께 시동인지 『시문학』을 창간해 편집과 재정을 맡아보면서 본격적인 문단활동을 하게 된다. 『시문학』 창간호에 「싸늘한 이마」, 「떠나가는 배」, 「비 내리는 밤」 등을 발표했다.

1931년 『문예월간』에 이어 1933년 『문학』지의 편집을 맡아보면서 번역가·비평가로 활동했다. 1935년 시문학사에서 일하면서 『정지용 시집』·『영랑시집』을 펴냈으며, 해외문학과 극예술연구회에 참여해 입센의 「인형의 집」 등을 번역하기도 했다. 특히 1935년 12월에 발표한 「올해 문단 총평」에서는 김기림과 임화의 시를 비판하고 정지용의 시를 옹호해 임화와 기교주의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 그 뒤 발표한 평론 「시적 변용에 대하여」(『삼천리문학』, 1938. 1)는 그의 시론의 뿌리를 보여주는 평론으로서 계급주의와 민족주의 문학 모두를 배격하고 존재로서의 시론, 즉 선시적인 것에 더욱 의미를 두었다.

GANGJIN
Web Contents

